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5~5/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2	불교성전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3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4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김윤수	한산암
5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6	딱돌 해설서 : 바르도에서 닦지 않고 해탈하는 법	중암선해	금빛소리
7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 내려놓고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	법륜스님	정토
8	초기 불교 입문 : 초기 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9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 출간 원고 6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10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권수염불법문)	원영굉오/정원규	불광출판사

책세상

빛바랜 원고로 만난 불교학 거장 '운허 스님'



운허 큰스님의 한산시와 남은돌 모둠

김연호 엮음

맑은소리맑은나라 펴냄

2만 2천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국불교 교학의 거장 운허 스님의 원고가 역사 속에 사라질 위기에서 한 재가자의 노력으로 책 〈운허 큰스님의 한산시와 남은돌 모둠〉으로 탄생했다.

5년 전 지인이 보낸 빛바랜 원고서 목청 김연호 거사(제천 우리는선우 지회장)는 행운을 예감했다. 사연이 깊어 보이는 원고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귀한 보물을 얻게 됐다는 기쁨으로 그는 전율했다. 원고는 운허 스님이 국문으로 번역한 한산시(寒山時)였다. 김연호 거사는 "일평생 구도자의 본연을 다하셨던 운허 큰스님의 진면목이 묻어나는 육필을 갖게 된다는 것은 나의 불교 운동 반세기에 안겨진 큰 선물이었다"고 회고 했다.

서찰 4통과 한시 번역 원고 100여장은 무슨 이유인지 출간 되지 못한 채 원고로만 남아 있었고 김연호 거사는 겉봉투 부터 살피기 시작했다. 운허 스님이 발송한 서찰의 겉봉투에 적힌 주소는 진주 연화사 였다. 김 거사는 원고와의 만남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대불련 시절 '나의 불심이 곧 행복' 이라는 등식을 안겨 준 곳이 진주 연화사였고, 연화사는 그에게 불심의 고향이었다.

그는 원고가 갖고 있는 의문점을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고 책으로 정리해 출간했다. 한산시는 당나라 중엽에 절강성 천태산 국청사 근처에 살던 어느 은자의 시이다. 선(禪)을 시로 풀어낸 불교문학의 고전으로 불리며 불교문학사의 큰 획을 그은 작품으로 분류된다. 운허 스님은 선승이자 한국 근세 불교의 3대 대강백(운허, 관응, 탄허) 중 한명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며, 20세기 한국 불교 최대의 불사로 불리는 〈한글 대장경〉 번역을 주도해 문화계 종장으로 불린다.

운허 스님의 한산시 번역 시기는 1950년대로 추정되며, 한글대장경 번역의 선구자이자 당대 최고 선지식의 안목으로 펼쳐 보인 최초 한글번역 선집으로 의의가 있다.

이번 책에는 운허 스님이 진주시 옥봉동 연화사에서 52번부터 247번까지 역주한 내용 중 총 94편을 담았다. 운허 스님의 육필 유고를 생생히 전달키 위해 현대 철자법을 따르지 않고 본 원고 그대로 옮겼고, 유고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진으로 작업해 엮었다. 아울러 운허 스님의 영정, 연보, 역저서 목록 등 운허 스님의 일대기 및 활동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한 운허 스님의 한산시 유고를 고증하는 가운데 새롭게 발견 한 '남은돌 모둠(여석회)' 을 소개했다. '남은돌 모둠' 은 운허 스님을 중심으로 불법의 대중화를 위해 15명의 원로 스님이 함께 한 모임이다. '남은돌 모둠' 의 행적을 사진과 자료로 제시해 근현대 한국불교의 실상을 알게 해주는 실질적인 자료이자 총람이 됐다. 남은돌 모둠서 활동한 스님은 운허 스님 홍경 스님 자운 스님 벽안 스님 고암 스님 석주 스님 서옹 스님 월하 스님 석암 스님 영암 스님 구산 스님 대휘 스님 지월 스님 등이다. 1962년 부산 청량사와 김해 육주사서 예비모임을 가진 뒤 15년간 17회까지 지속된 종단 어른스님들의 활동상을 이 책에서 마주할 수 있다.



1964년 6월 2일 부산 청량사서 열린 제5회 '남은돌 모둠' 행사에 모인 스님들. 앞줄 왼쪽서 두번째가 운허 스님.

한시 미발표 원고 100여 장이 시발점
운허스님 연화사서 역주한 내용 94편
철자법 안따르고 본원고 그대로 옮겨

한국불교의 미래를 염려하는 내용과 유신난국 속 스님들의 활약을 함께 엿볼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수확이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산시 해제' '남은돌 모둠 해제' '운허 큰스님 육필 서간' 등을 덧붙이는 부록이 담겼다. 특히 '한산시 해제' 는 김연호 회장의 아들이자 현재 동아시아학 박사과정에 있는 여철 스님이 '한산시와 운허스님의 한글 역주 한산시 선집에 대한 일고찰' 을 주제로 게재해 눈길을 끈다. '한산시와 운허스님의 한글 역주 한산시 선집에 대한 일고찰' 에는 한산시의 판본, 한산시 저자의 생존 연대, 근현대 한산시 한글 번역의 흐름, 한산시 선집의 특징을 챕터별로 정리했다.

목청 김연호 거사는 재가 불교 운동 50주년을 맞았다. 뛰어난 문화의식으로 향토 문화재 수집과 불교문화 지키기에 앞장서 왔으며 단순한 수집이 아닌 대중과 나누는 회향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그는 국립 청주 박물관에 두 차례 문화재를 기증했으며 스님들의 선묵 전시회를 열어 불교문화의 향연을 선사했다.

김연호 거사는 "재가 불교 운동 50주년을 맞았다. 조금이나마 불법 홍포에 기여한 바 있다면 오직 그것은 여러 수승한 고승 대덕들의 삶을 흉내내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다"며 "운허 큰 스님을 비롯한 남은돌 모둠 스님들께서 이 시대 우리 곁에 함께 하신 큰 행운과 영광을 한없이 수희찬탄하며 추모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저자 목청 김연호 거사는 1952년 하동 진교에서 출생했다. 국립경상대학수의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제천에서 동물병원 운과 재가불자회 '우리는 선우회장' 이자 제천문화재단 이사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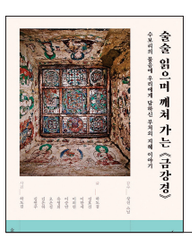
주요사회 활동사항은 2004년 제천 '옥소종합예술제' 를 창설하여 5회까지 추진위원장을 담당했으며, 2005년 제천국제음악화제 초대부터 5회까지 집행위원을 맡았다. 2007년 8월 '제2회 중국 제백석 예술제' 한국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했으며 2016년에는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회 추진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립청주박물관에 2차에 걸쳐 문화재 620점을 기증한 바 있으며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불교문화재 5점을 기증했고 제천역사박물관에 문화재 600여 점을 기증했다.

저서로는 수필집 〈준 것은 남고 가진 것은 없어진다〉, 2016년 〈합장인생 -김연호 제천 40년, 불교 40년〉 등 다수를 출간했다.

주요 불교활동은 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4년간 활동했으며 제천 불교청년회, 불교학생회, 거사림회, 재가불교 단체 '우리는 선우' 를 창립 지도했다.

1991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으며 제5회 제천시 문화상, 제7회 사단법인 불이회 불이상 , 제2회 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의 대원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제12회 충북도민대상과 제1회 대불련동문 대상을 수상 한바 있다.



술술 읽으며 깨쳐 가는 금강경

하도겸 외 8인 지음

운주사 펴냄/1만 6천원

금강경 번역 자체가 곧 해설서 역할
나마스떼코리아 회원 공부한 결과물

세존과 수보리장자 대화 현대적 해설

이 책은 단순한 번역서가 아니라 당시 세존과 수보리장자의 대화를 현대적으로 살린 해설서이다. 기존의 해설서들은 원문 번역을 읽고, 다시 어렵고 심오한 개념이나 경문에 대한 해설을 읽어야 하는 번잡함이 있었다. 금강경을 이해하려고 해설서를 보는데, 다시 그 해설까지 공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번역과 해설을 두 가지로 나누지 않았다. 번역 경문을 현대 우리 한글로 매끄럽고 편하게 해석해서 번역 자체가 그대로 해설서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새롭게 해설번역서를 낸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목이 '술술 읽으며 깨쳐 가는 금강경' 이다.

불자와 이웃 종교인이 함께 만들어

이 책은 나마스떼코리아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 공부한 결과물을 엮은 것이다. 나마스떼코리아는 주로 히말라야문화권에 관심을 가지고 교류와 지원을 하는 NGO로, 대부분 기부금의 30% 이하만 현지에 도달하는 것을 보고 80% 이상을 목적 사업에 쓰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회원들은 매주 금강경을 읽으며 의미를 나누고 토론을 하였는데, 이 책은 이렇게 탄생한 일종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이 모임에는 불교인뿐만 아니라 천주교 등의 타 종교인들도 함께 참여했는데, 이 책이 이렇게 완성되기까지는 이들의 활약이 컸다.

우리말의 맛과 멋 살려 유려하게 번역

한자와 달리 한글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는 물론이고 인간 사이의 존경과 관계에 따른 미세한 차이를 담은 뉘앙스까지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와 문체들이 많다.

이 책은 오랜 시간 다양한 수준의 역주자들이 번역에 참여하면서 이런 우리말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었다. 금강경을 설할 당시의 분위기, 부처님의 의지, 부드러운 말씀의 아름다움을 포함하여 뉘앙스까지 살리고자 하였다. 이로서 우리는 당시 기원정사의 금강경 회상(법회)에서처럼,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깨치는 금강경으로 한 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김주일 기자